

장흥군 '이청준 문학관' 입지 놓고 공방

9월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집행부 "고향 회진면에 설립해야" 군의회 "천관문학관에 문학실 마련" 150억원 건립 예산 확보 진통 예상

한국 현대문학 거장 소설가 고(故) 이청준 선생의 문학관 건립 부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276회 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와 군의회가 장소 선정을 놓고 설전을 하는 등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장흥군은 민선 6기 때인 지난 2015년 10월 이청준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이청준 애호 문학인들로 구성된 기업사업회와 공조해 추진계

획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선7기 들어 이청준문학관 건립추진사업은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부진 담보상태에 머물렀다. 민선 8기 들어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은 기념사업회측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장소에 어느 정도 접근을 보이는 등 속도를 보였다. 우선 군은 이청준 소설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문학작품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9월에 발주한 상태로, 12월 말까지 마친 후 공청화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장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청준 문학관 건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김성 장흥군수는 고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기념사업회와 유족 측이 요구한 회진면 선화동마을 언

저리에 문학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 백광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05년에 천관산 자락에 문인들의 작품활동 목적으로 건립된 '천관문학관' 내에 이청준 문학실을 마련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현재 문제부의 지침에 따르면 문학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해야 하고, 문학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만 1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진통이 뒤따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각처에 있는 문학관은 보성에 들어선 조령대 문학관(3곳)을 포함 총 97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이 최근 미래성장형 디지털농업 실용화기술을 보급하고 지속가능한 정밀농업 기술지원을 위해 미국 로봇 기반 농업 스타트업인 조르디(Zordi·대표 이길우)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 전자동화 온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 딸기 '죽향' '메리퀸' 美서 로열티 받는다

로봇 기반 스타트업 조르디사와 통상실시 계약...글로벌 파급 효과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딸기 품종인 '죽향'과 '메리퀸'에 대해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미국 로봇 기반 농업 스타트업인 조르디(Zordi)사와 체결해 글로벌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르디사는 담양군이 개발, 육성한 딸기 품종 8종인 '죽향'과 '메리퀸'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2021년 상반기부터 두 품종에 대한 미국 내 시험 재배를 희망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험재배를 진행하면서 로봇 기반 전자동화 온실에서 딸기재배 가능성을 검증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작물재배 환경에 적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은 미래농업의 목표로, 농업용 로봇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결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고위험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농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죽향과 메리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여러 종의 딸기 시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맛, 향, 색깔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죽향은 당도, 산도, 경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깊은 맛으로 2014년 품종등록 이후 1등 딸기로서 국내 시장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프리미엄 딸기로 인정받고 있다. 메리퀸 역시 당도와 경도가 뛰어나 죽향과 더불어 수출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두 품종은 품종 수출을 위해 유럽, 베트남 등 4개국에 국외 품종보호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서 재배시험이 진행 중이며, 메리퀸 역시 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통상실시 계약이 담양 딸기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배, 가공, 체험, 유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양 딸기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윤병태 나주시장과 나주시민들이 제28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장수상을 수상한 장말래(오른쪽) 할머니를 축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101세 두 어르신, 무병장수 축하합니다"

나주시 '찾아가는 장수상' 전달 "시골 찾아와줘 고맙다" 눈시울

나주시가 올해로 101세, 상수(上壽)를 맞이한 어르신들을 찾아 상패를 전달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윤병태 시장 등이 올해로 101세를 맞은 봉황면 조병조 할아버지와, 다시면 장말래 할머니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장수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 100세를 넘긴 두 어르신이 상패와 꽃다발을 한아름 품

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했다. 장수상은 제28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 시상 부문 중 하나다. 나주시는 고령에도 평소 근면·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지역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매년 장수상을 시상한다. 다만 이번에 수상한 두 어르신은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시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봉황·다시면 2개 지역 면장, 노인회장, 이장단장, 마을 이장과 주민 등도 함께 참석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함께 기원

했다. 상패와 꽃다발을 전해 받은 장말래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시골 골짜기 마을까지 찾아와줘서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 나를 보러 이렇게까지 오셨느냐"라며 한동안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병태 시장은 두 어르신에게 "30일 시민의 날 기념으로 상을 드려야 하는데 어르신들의 안전을 생각해 직접 내려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시민과 함께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공공시설 이용 공유누리 서비스 확대

238개 자원 등록 주민 생활 서비스

담양군이 공공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돕는 '공유누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공유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자원을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유서비스다. 담양군은 10월 현재 주차장, 공용화장실, 생활용품 등 총 238개의 공공자원을 등록했으며 실과

소와 읍면별로 공유누리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등록자원을 일괄 정비해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공자원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유누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 회원가입 후 지역과 종류별 이용 희망시설의 운영시간, 예약방법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 상·하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 결정

나주시가 1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별 인상을 결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 요금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체계로 인해 연 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 누적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타 시 지자체 현실화율(생산 원가 대비 수익) 평균치인 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나주시 상수도 생산 원가는 t당 1840원이지만 평균 요금은 725원으로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39.4%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비용은 t당 3368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240원에 불과해 현실화율이 7.1%로 만성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나주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9.5%,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9% 달성을 장기 목표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인상을 일시에 높일 경우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4년 간 단계별로 올려 인상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금 인상은 상수도의 경우 19년, 하수도의 경우 15년만이다.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주=송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강진군, 지역특화음식 육성 컨설팅 업소 모집

내일까지...용품·홍보 등 지원

강진군이 지역특화음식에 관심있는 '사장님'을 모집한다. 강진군은 지역특화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2일까지 2022년 지역특화음식 육성 컨설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한정식, 탕요리, 단품요리 육성이 가능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소로 현지조사 실시 후 심의를 거쳐 오는 7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참여업소에 선정되면 기존 메뉴 맛 개선, 신규 메뉴 개발, 단품요리 육성,接客서비스 개선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또 추후 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홈페이지 게재 등 업소 홍보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김학동 문화관광실장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특화음식 컨설팅 신규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061-430-3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화순군,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 모집

감축률 5%, 年 10만원 인센티브

화순군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과거 1~2년간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감축률 5% 이상 참여자에게 연간 최대 5만 포인트(10만원)를 지급한다. 가입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 번호를 확

인한 후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 후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를 수정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탄소포인트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는 인센티브 1만 원을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온실가스의 무분별한 배출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청년농업인 35명에 현장 노하우 전수

현장지원단 멘토링 간담회

장성군이 최근 청년농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간담회에 초대받은 청년농업인은 후계농 선정 1~2년차의 초보 농업인 35명으로, 선배 농업인의 조언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멘토링을 맡은 현장지원단은 농업 마이스터, 선도 농가 등 전문 농업인들로 농업기술 전수는 물론 농산물 판로 확보와 유통 방법 등 다양한 현장 노

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해 호평을 얻었다. 지원단은 간담회 이후에도 청년농업인 농장에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격려 인사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업전문가가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장성농업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기 바란다"면서 "군도 일류농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현재 민선8기 공약인 '2040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 우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